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보도자료			
	보도	배포 즉시	배포	2022. 6. 2.(목)
담당부서	금융정책실 금융연구실	실장 박영호 (051-631-0281) 매니저 김진건 (051-647-9052)		

- 동북아 금융허브 부산의 비전 실현을 위한 금융중심지 포럼 개최 -

제2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개최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원장 김종화)은 6. 2.(목) 오후 2시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BIFC 39층)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규제 및 감독환경 점검과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제2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을 개최한다.

< 제2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개요 >

- 주관 :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 일시/장소 : 2022. 6. 2.(목) 14:00~16:00 /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BIFC 39층)
- 주요 참석자 : 정무위 소속 부산 지역구 의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원기관(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BNK부산은행·기술보증기금) 실무 전문가, 학계 및 업계 인사 20인 내외
- 주제 발표 : ①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규제 및 감독환경 점검, ②바람직한 부산 금융중심지 방향과 정책과제

-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과제를 재정립하고 체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에는 입법·행정 및 감독기관과 각계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금번 제2회 포럼에는 주로 금융산업 규제 개선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여 명의 패널이 참석한다.

□ 크라우드디 김기석 대표와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박사가 금융 업권별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규제·감독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성기철 부산시 금융정책보좌관이 ‘바람직한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방향과 정책 과제’를 발제한 후, 박병원 전은행연합회 회장의 주재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김종화 원장은 “이번 포럼은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되돌아보고 금융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민관 핵심 전문가가 참석하는 만큼 향후 법 개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제2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사진

